

예고된 박찬호 ‘빈자리’...‘최상의 해법’ 찾아라

KIA, 유격수 공백 ‘발등의 불’...다양한 옵션 구상

내야재편 불가피, 김규성·박민·정현창 역할 분담 1순위 대안
김도영 가능성 ‘부상 변수’...애크터·트레이드, 신효성 미지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내야 수비 중심이던 박찬호가 두산으로의 이적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KIA는 내년 시즌 유격수 공백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14일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찬호와 두산과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옵션과 계약 기간 조율만 남겨둔 상태이며, 이르면 이번 주 초 계약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찬호의 이탈 가능성이 커지면서 KIA 내야는 예상보다 큰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그는 올 시즌 1전114%이닝을 소화하며 팀 유격수 이닝의 88% 이상을 책임졌다. 단순히 출전 시간이 많은 주전이 아니라, 수비의 기증전에 가까웠다. 깊숙한 타구 처리, 전진 수비 판단, 정확한 송구 등에서 리그 상위권 기량을 보여주며 내야 안정의 축 역할을 해왔다.

그의 이탈은 한 포지션의 공백을 넘어, 수비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진다.

KIA로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우선, KIA가 내년 시즌 선택할 수 있는 유격수 방안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가장 거론되는 제1안은 김규성을 중심으로 한 내부 주전 체제다. 김규성은 올 시즌 여러 포지션을 오가며 경험을 쌓았고, 수비 범위와 송구 안정성에서도 무난한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박민과 정현창 등 젊은 자원을 더해 부담을 분담하는 방식도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세 선수 모두 공격력에서 확실한 플러스 요인으로 평가받긴 어렵고, 한 시즌을 온전히 버틸 체력 역시 과제로 남는다.

유격수는 체력 소모가 큰 포지션인 만큼, 상황에 따라 2-3명이 나눠 뛰는 분할 기용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 스프링캠프에서 이 같은 조합 실험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대안은 3루수 김도영의 유격수 전환이다.

김도영은 고교 시절 유격수 주전이었고, KIA 입단 후에도 그 능력은 꾸준히 언급돼왔다. 다만 지난 시즌 부상 여파와 체력 부담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이 남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재 전력 구성과 선택지 폭을 고려



김규성

하면, 김도영 카드는 여전히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아시아쿼터 활용도 제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다. 유격수는 20만 달러 선에서 공수 겸비형 외국인 자원을 찾기 어렵고, 시행 첫해부터 즉시전력으로 쓰기엔 리스크가 크다.

KBO 특유의 타구 흐름과 작전 중심의 경기 템포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외국인 내야수가 KBO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부담 요소다. KIA가



박민 <KIA 타이거즈 제공>

이 카드를 ‘보조 플랜’ 이상으로 활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외부 대체가 어려운 만큼, 트레이드 시장은 예비 옵션으로 남아 있다. 이번 FA 시장에서 유격수 최대어였던 박찬호가 빠지면서 수준급 외부 FA 유격수 자원은 전무하다.

이에 KIA는 불펜 자원이나 1군 레벨 투수를 묶는 트레이드를 통해 내야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마운드에 고민이 있는 구단들과는 필요 자원이 맞아떨어질 여지도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방법론에 불과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결국 KIA의 내년 유격수 로스터는 김규성·박민·정현창 등 조합 운용, 김도영 카드, 아시아쿼터 활용, 그리고 트레이드 탐색까지 4갈래 정도로 압축된다.

박찬호가 쌓아온 기록과 존재감은 분명 압도적이었다. 그만큼 KIA가 내년 시즌을 준비하며 풀어야 할 숙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내야 수비의 중심축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그 답을 찾는 과정이 곧 KIA의 새로운 시즌 준비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주홍철 기자

“최고의 월드컵 준비, 최선 다해야 하는 이유”

오늘 가나戰, 캡틴 손흥민 “대표팀 장점은 유럽파의 풍부한 빅리그 경험”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손흥민은 흥명보호의 장점으로 ‘유럽파들의 경험과 어린 선수들의 당돌한 플레이’를 손꼽았다.

손흥민은 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가나와의 평가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올해 마지막 A매치를 승리로 장식하고 싶다”며 “선수들의 분위기도 좋고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대표팀은 1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가나와 이달 A매치 2연전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손흥민은 지난 14일 볼리비아와 평가전에서 기막힌 프리킥으로 선제 결승골을 터트리며 A매치 54호골을 기록, A매치 통산 최다득점 1위에 올라 있는 차범근 전 감독(58골)을 4골 차로 바짝 추격하며 발끝 감각을 끌어올렸다. 다만 손흥민은 가나와 지금까지 두 차례(2022년 카타르 월드컵 2-3 패·2014년 6월 평가전 0-4 패) 만나 아직 승리와 골 맛을 보지 못한 터라 내일 경기를 앞두고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손흥민은 “월드컵 조 추첨에서 포트에 포함돼야 하는 중요성을 숨길 필요는 없다”며 “이것이 내일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3년 전 만났던 가나에 패했던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다가올 월드컵만 생각하고 있다”며 “선수들 분위기 좋고 훈련도



가나와의 평가전을 하루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 손흥민, 김민재 등 선수들이 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팀의 장점을 물어보자 ‘캡틴’ 손흥민은 유럽파 선수들의 경험과 어린 선수들의 당돌한 플레이를 지목했다.

손흥민은 “유럽 무대에서 많은 선수가 뛰면서 쌓은 경험은 내년 월드컵에서 정말 큰 장점이 될 것”이라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우승을 경험한 선수도 있

다. 그런 경험들이 결국 월드컵에서 대표팀에 큰 도움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린 선수들의 개성 넘치는 플레이도 좋다. 그들의 당돌하고 자신 있는 플레이는 대표팀에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점들도 물론 있겠지만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남장애인사격연맹 백승학 도쿄 데플림픽 한국선수단 첫 메달

남자 공기소총 10m ‘銅’

청각장애 사격 국가대표 백승학(전남장애인사격연맹)이 2025 도쿄 데플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 소식을 알렸다.

백승학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국립훈련센터 사격장에서 열린 사격 남자 공기소총 10m 결선에서 223.6점을 쏘아 리카르트 다르쉬(252.2점), 바니야 모하메드 무르타자(250.1점·이상 인도)의 뒤를 이었다.

예선을 7위로 통과한 백승학은 비장애인 국

가대표 출신 김우림(223.4점·보은군청)을 막판 경쟁 끝에 0.2점 차로 제치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데플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첫 메달을 따게 돼 영광”이라며 “내 컨디션과 흐름을 잘 유지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정승화(세종장애인체육회)는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정승화는 이날 일본 도쿄 무도관에서 열린 대회 유도 여자 52kg급 결선에서 안나 쇼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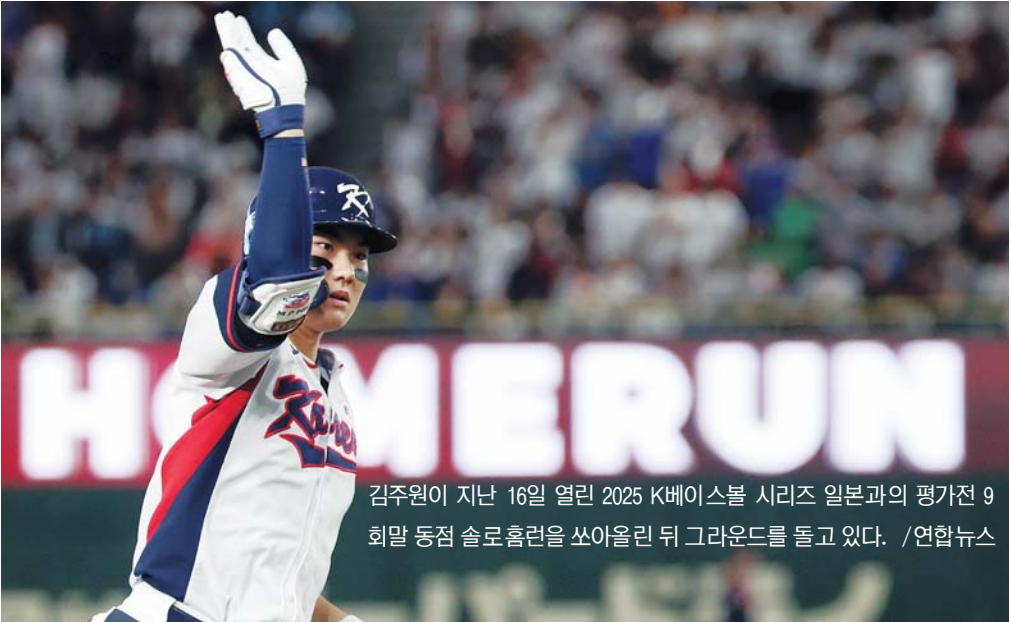
지난 16일 열린 2025 도쿄 데플림픽 사격 남자 소총 10m 결선에서 동메달을 딴 백승학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서 품에 그리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크라이나)을 골든스코어(연장전) 접전 끝에 되찾기 절반으로 깎으며 우승했다.

만 36세 베테랑인 정승화는 2009 타이베이 대회 동메달을 시작으로 데플림픽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고 이번 대회에

서 품에 그리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김주원이 지난 16일 열린 2025 K베이스볼 시리즈 일본과의 평가전 9회말 동점 솔로 홈런을 쏘아올린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2경기 11득점’...‘2경기 21볼넷·밀어내기 4점’

韓日戰 ‘빛과 그림자’...경험은 수확

한국 야구대표팀 타자들은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라운드가 열린 일본 도쿄돔에서 희망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평균 22.1세의 ‘영건’들로 채워진 마운드는 4만 관중의 함성 속에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는 약점을 노출했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지난 15-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2연전을 1무1패로 마쳤다.

1차전을 4-11로 완쾌한 한국은 2차전 9회말 2사에서 터진 김주원(NC)의 극적인 홈런포로 마지 승리 같은 7-7 무승부를 거뒀다.

내년 1월 WBC를 향해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할 류지현호는 이번 2연전을 통해 ‘타선 경쟁력 확인’이라는 수확물과 ‘투수들의 제구 난조 극복’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동시에 받아들였다.

이번 평가전 최대 성과는 젊은 타자들의 국제 경쟁력 확인이다.

가장 먼저 안현민(kt)은 ‘젊은 거포’의 등장을 알렸다. 안현민은 1차전 선제 투런포에 이어 2차전 추격의 솔로포로 2경기 연속 홈런을 터트렸다. 또한 2경기에서 볼넷 3개를 골라내 선구안도 합격점을 받았다.

신민재(LG)는 1번 타자로 10타수 4안타(타율 0.400) 1타점 2득점으로 필필 날며 리드오프 고민을 덜어줬다.

3번 타자로 나선 송성문(기용) 역시 1차전 홈런을 포함해 9타수 3안타 3타점으로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했다.

여기에 2차전에서 2안타를 친 문현빈(한화 이글스)과 박해민(LG)이 하위 타선에서 활약을 보여냈었고, ‘대형 유격수’ 김주원은 2차전 9회말 2사에서 동점 홈런이라는 인생 경기를 펼쳐 자신감을 얻었다.

1차전 4점, 2차전 7점 등 2경기 11점을 뽑아낸 타선은 제 몫을 다했다.

또 대표팀은 경험을 수확으로 얻었다.

이번 대표팀 33명 중 도쿄돔 경험이 있는 선수는 고작 11명이었다.

4만 명이 넘는 관중 앞에서 말로만 듣던 ‘압박감’을 직접 느낀 것 자체가 선수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다.

타선이 희망을 봤다면, 마운드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다.

류 감독은 이번 대표팀에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평균 연령 22.1세의 젊은 투수들을 대거 발탁했다. 하지만 이들은 도쿄돔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졌다.

이튿날 허용한 볼넷은 무려 21개이며, 2차전에서는 7실점 중 4점을 밀어내기 볼넷으로 헌납했다.

1차전 9볼넷(사사구 11개)에 이어 2차전에서도 볼넷 12개를 남발했다.

2차전 선발 정우주(3이닝 1볼넷)와 2이닝을 출루 허용 없이 무실점으로 막은 박영현(kt)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수가 제구에 애를 먹었다.

대표팀은 내년 1월 사이판 전지훈련을 소집해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한다. /연합뉴스